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인쇄 확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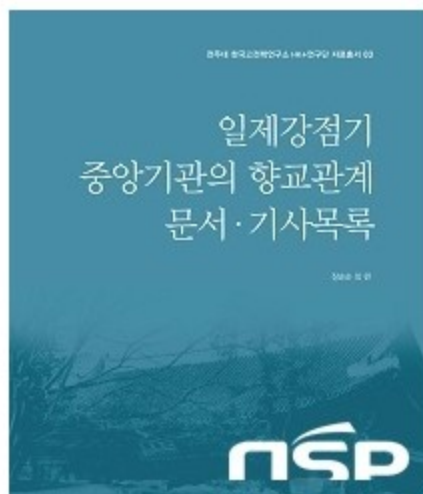
전주대, '일제강점기 중앙기관 향교 문서·기사 목록' 출간

2020-04-20 14:16, 김광석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일제강점기, #향교, #조선총독부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20일 자료총서 3권 '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기사목록'을 출간했다.

이 자료총서는 근대 향교자료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향교관계 문서와 기사의 목록들을 수집한 목록집으로 1910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조선총독부 등 중앙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가운데 향교 관계 문서를 모로하해다. 공문서로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문서철, 일본 외무성, 주한일본국공사관 기록, 통감부문서, 경성지방법원 문서, 육군성, 외무성 문서 등이 수록됐다.



언론 매체로는 조선총독부의 대표적인 기관지인 '매일신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직속 기관이었던 경학원의 기관지인 '경학원잡지', 기타 조선총독부와 그 직속의 기관, 각 도에서 출간한 잡지 및 저서에 수록된 향교 관련 문서와 기록을 한 데 모았다.

각 목록은 원문과 한글로 번역한 문서명/기사명과 발행인, 발신과 수신, 문서철, 면수, 생산년도, 생산처의 순서로 정리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문서는 세부 문서 외에 첨부자료란을 별도로 두어 목록만으로도 문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정리했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권력에 의해 유력한 지방 세력으로 평가받았던 향교 유림과 그들의 활동 근거지였던 향교의 실상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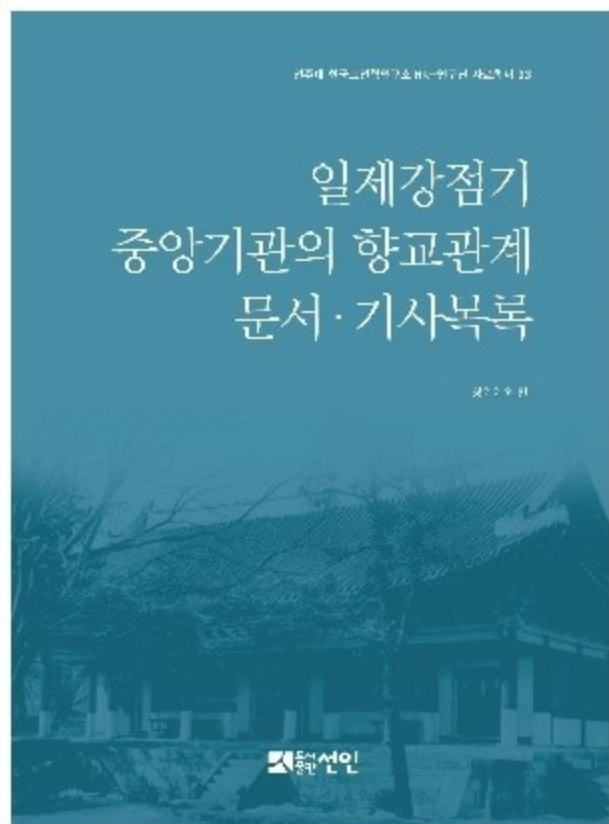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ME > 뉴스 > 교육/생활정보

전주대 HK+연구단, 일제강점기 중앙기관 향교 문서·기사 목록 출간

입력 : 20.04.20 16:06 | 수정 : 20.04.20 16:06 | 전북타임즈 | 댓글 0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20일 자료총서 3권「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기사목록」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총서는 근대 향교자료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향교관계 문서와 기사의 목록들을 수집한 목록집으로 1910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조선총독부 등 중앙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가운데 향교 관계 문서를 목록화했다.

공문서로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문서철, 일본 외무성, 주한일본국공사관 기록, 통감부 문서, 경성지방법원 문서, 육군성, 외무성 문서 등이 수록됐다. 언론 매체로는 조선총독부의 대표적인 기관지인 매일신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직속 기관이었던 경학원의 기관지인 「경학원잡지」, 기타 조선총독부와 그 직속의 기관, 각 도에서 출간한 잡지 및 저서에 수록된 향교 관련 문서와 기록을 한 데 모았다.

각 목록은 원문과 한글로 본역한 문서명/기사명과 발행인, 발신과 수신, 문서철, 면수, 생산년도, 생산처의 순서로 정리됐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문서는 세부 문서 외에 첨부자료 란을 별도로 두어 목록만으로도 문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정리했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권력에 의해 유력한 지방 세력으로 평가받았던 향교 유림과 그들의 활동 근거지였던 향교의 실상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대 HK+연구단 '일제강점기 중앙기관 향교 문서·기사 목록' 출간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0/04/20 [16:57]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20일 자료총서 3권 '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기사 목록'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총서는 근대 향교자료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향교관계 문서와 기사의 목록들을 수집한 목록집으로 1910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조선총독부 등 중앙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가운데 향교 관계 문서를 목록화했다.

공문서로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문서철, 일본 외무성, 주한일본국공사관 기록, 통감부문서, 경성지방법원 문서, 육군성, 외무성 문서 등이 수록됐다. 언론 매체로는 조선총독부의 대표적인 기관지인 '매일신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직속 기관이었던 경학원의 기관지인 '경학원잡지', 기타 조선총독부와 그 직속의 기관, 각 도에서 출간한 잡지 및 저서에 수록된 향교 관련 문서와 기록을 한 데 모았다.

각 목록은 원문과 한글로 본역한 문서명/기사명과 발행인, 발신과 수신, 문서철, 면수, 생산년도, 생산처의 순서로 정리했고,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문서는 세부 문서 외에 첨부자료 란을 별도로 두어 목록만으로도 문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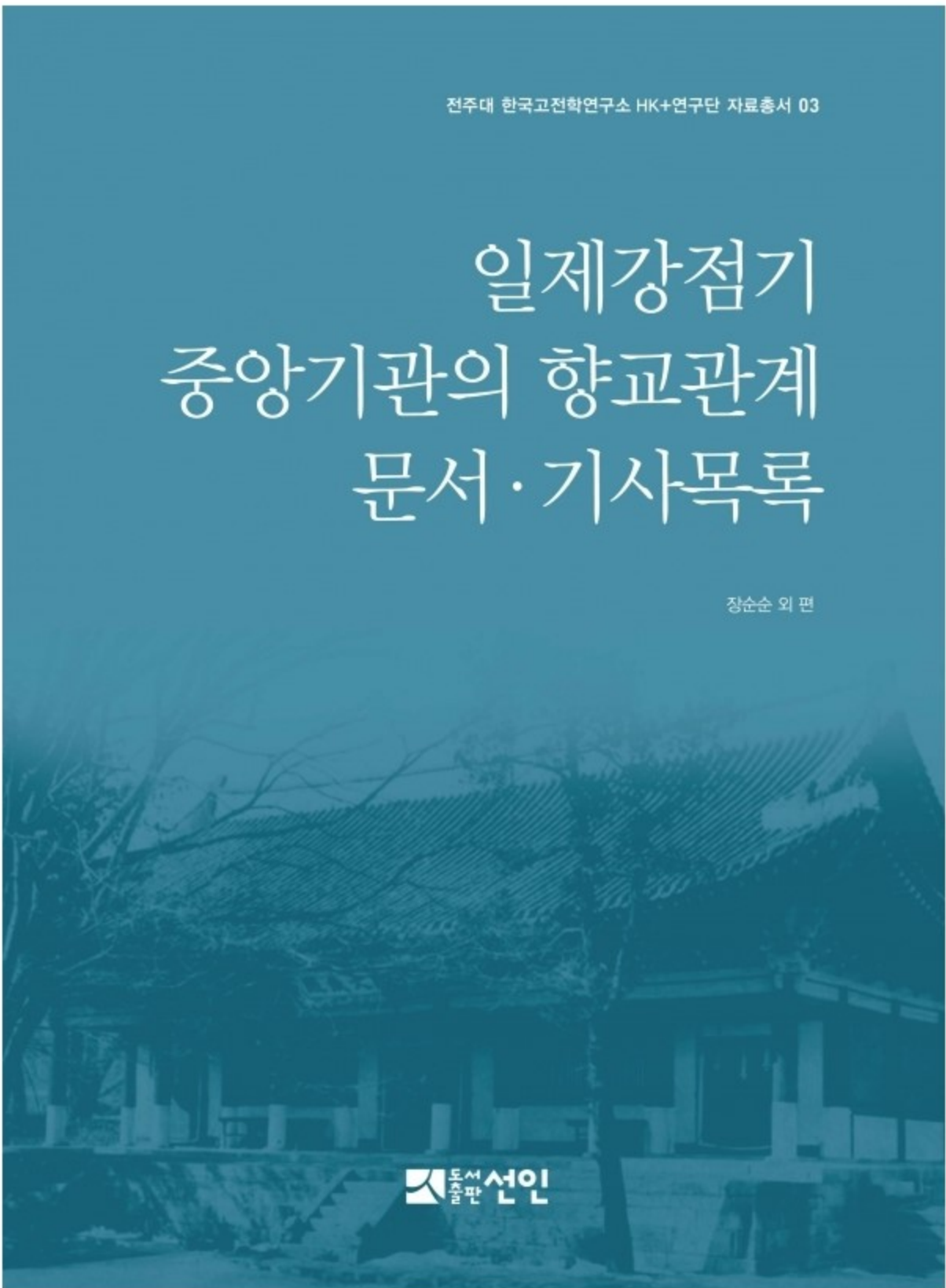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권력에 의해 유력한 지방 세력으로 평가받았던 향교 유림과 그들의 활동 근거지였던 향교의 실상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HOME > 전북 > 교육/학교

전주대 HK+연구단, '일제강점기 중앙기관 향교 문서·기사목록' 출간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4.20 18:14 | 댓글 0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20일, 자료총서 3권 '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기사목록'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총서는 근대 향교자료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향교관계 문서와 기사의 목록들을 수집한 목록집으로 1910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조선총독부 등 중앙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가운데 향교 관계 문서를 목록화했다.

공문서로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문서철, 일본 외무성, 주한일본국공사관 기록, 통감부문서, 경성지방법원 문서, 육군성, 외무성 문서 등이 수록되었다. 언론 매체로는 조선총독부의 대표적인 기관지인 '매일신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직속 기관이었던 경학원의 기관지인 '경학원잡지', 기타 조선총독부와 그 직속의 기관, 각 도에서 출간한 잡지 및 저서에 수록된 향교 관련 문서와 기록을 한 데 모았다.

각 목록은 원문과 한글로 본역한 문서명/기사명과 발행인, 발신과 수신, 문서철, 면수, 생산년도, 생산처의 순서로 정리하였고,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문서는 세부 문서 외에 첨부자료 란을 별도로 두어 목록만으로도 문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정리했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권력에 의해 유력한 지방 세력으로 평가받았던 향교 유림과 그들의 활동 근거지였던 향교의 실상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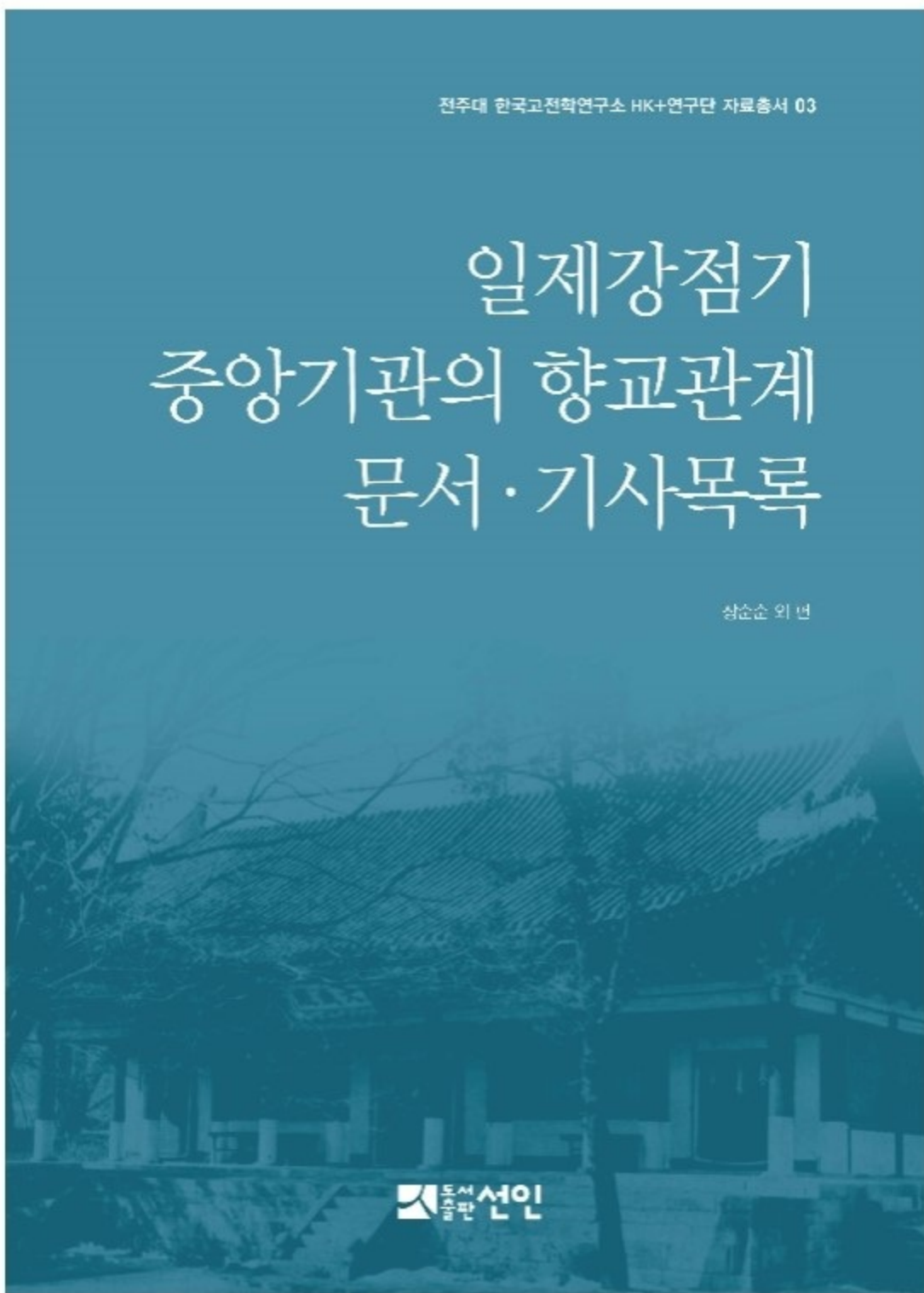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ME > BOOK > 화제의 책

전주대 HK+연구단, '일제강점기 중앙기관 향교 문서·기사 목록' 출간

이혜인 | 승인 2020.04.20 17:44 | 댓글 0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지난 20일, 자료총서 3권 「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기사목록」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총서는 근대 향교자료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향교관계 문서와 기사의 목록들을 수집한 목록집으로 1910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조선총독부 등 중앙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가운데 향교 관계 문서를 목록화하였다.

공문서로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문서철, 일본 외무성, 주한일본국공사관 기록, 통감부문서, 경성지방법원 문서, 육군성, 외무성 문서 등이 수록되었다. 언론 매체로는 조선총독부의 대표적인 기관지인 「매일신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직속 기관이었던 경학원의 기관지인 「경학원잡지」, 기타 조선총독부와 그 직속의 기관, 각 도에서 출간한 잡지 및 저서에 수록된 향교 관련 문서와 기록을 한 데 모았다.

각 목록은 원문과 한글로 번역한 문서명/기사명과 발행인, 발신과 수신, 문서철, 면수, 생산년도, 생산처의 순서로 정리하였고,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문서는 세부 문서 외에 첨부자료란을 별도로 두어 목록만으로도 문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하였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권력에 의해 유력한 지방 세력으로 평가받았던 향교 유림과 그들의 활동 근거지였던 향교의 실상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Tag

#전주대 #도서출판선인 #교수신문 #일제강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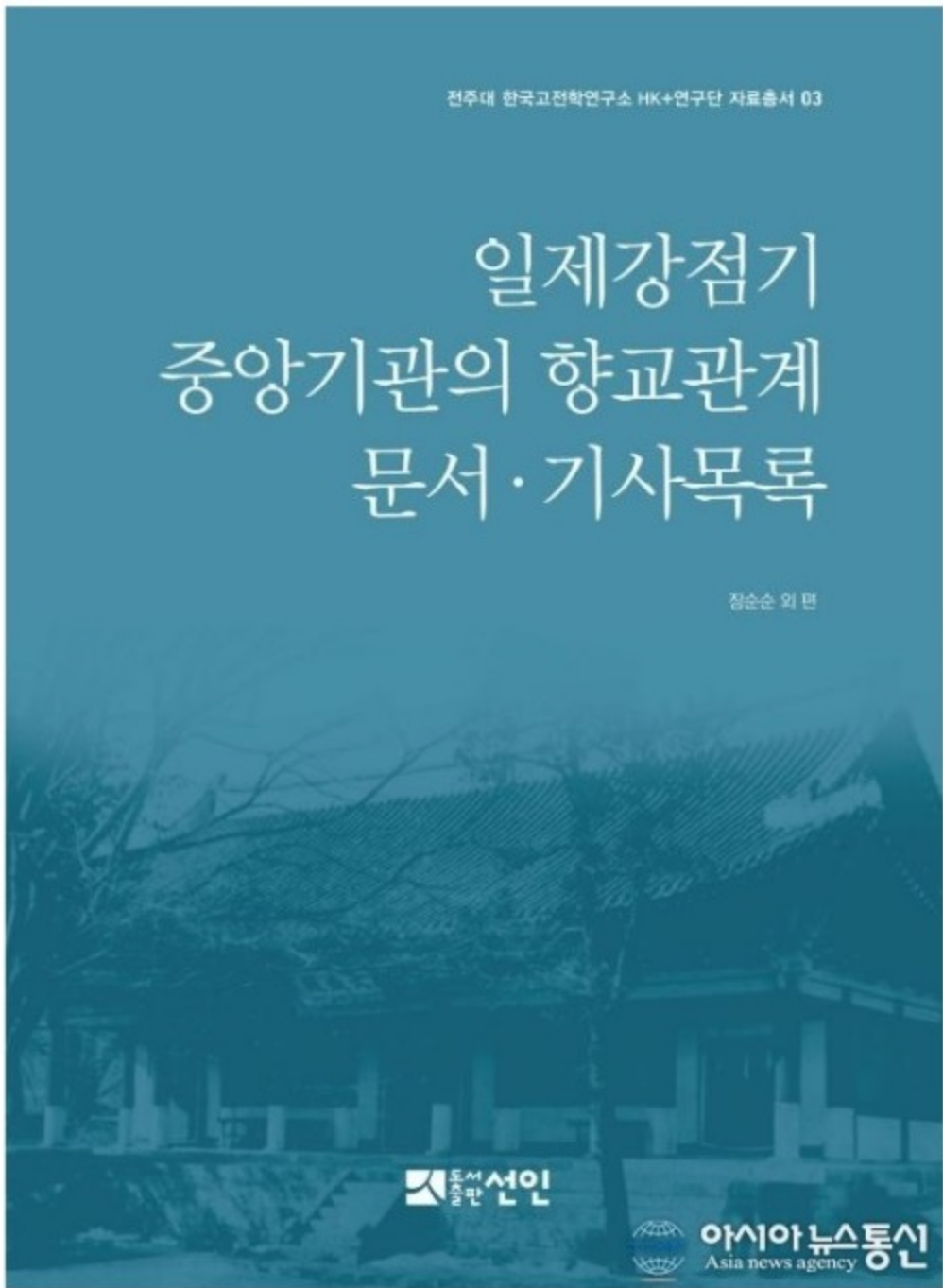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전주대 HK+연구단, '일제강점기 중앙기관 향교 문서·기사 목록' 출간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현홍기자

송고시간 2020-04-20 11:55



전주대 HK+연구단, '일제강점기 중앙기관 향교 문서·기사 목록' 출간.(자료제공=전주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20일, 자료총서 3권 「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기사목록」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총서는 근대 향교자료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향교관계 문서와 기사의 목록들을 수집한 목록집으로 1910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조선총독부 등 중앙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가운데 향교관계 문서를 목록화했다.

공문서로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문서철, 일본 외무성, 주한일본국공사관 기록, 통감부문서, 경성지방법원 문서, 육군성, 외무성 문서 등이 수록됐다.

언론 매체로는 조선총독부의 대표적인 기관지인 「매일신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직속 기관이었던 경학원의 기관지인 「경학원잡지」, 기타 조선총독부와 그 직속의 기관, 각 도에서 출간한 잡지 및 저서에 수록된 향교 관련 문서와 기록을 한 데 모았다.

각 목록은 원문과 한글로 번역한 문서명/기사명과 발행인, 발신과 수신, 문서철, 면수, 생산년도, 생산처의 순서로 정리했고,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문서는 세부 문서 외에 첨부자료 란을 별도로 두어 목록만으로도 문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정리했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권력에 의해 유력한 지방 세력으로 평가받았던 향교 유림과 그들의 활동 근거지였던 향교의 실상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뉴스통신=김현홍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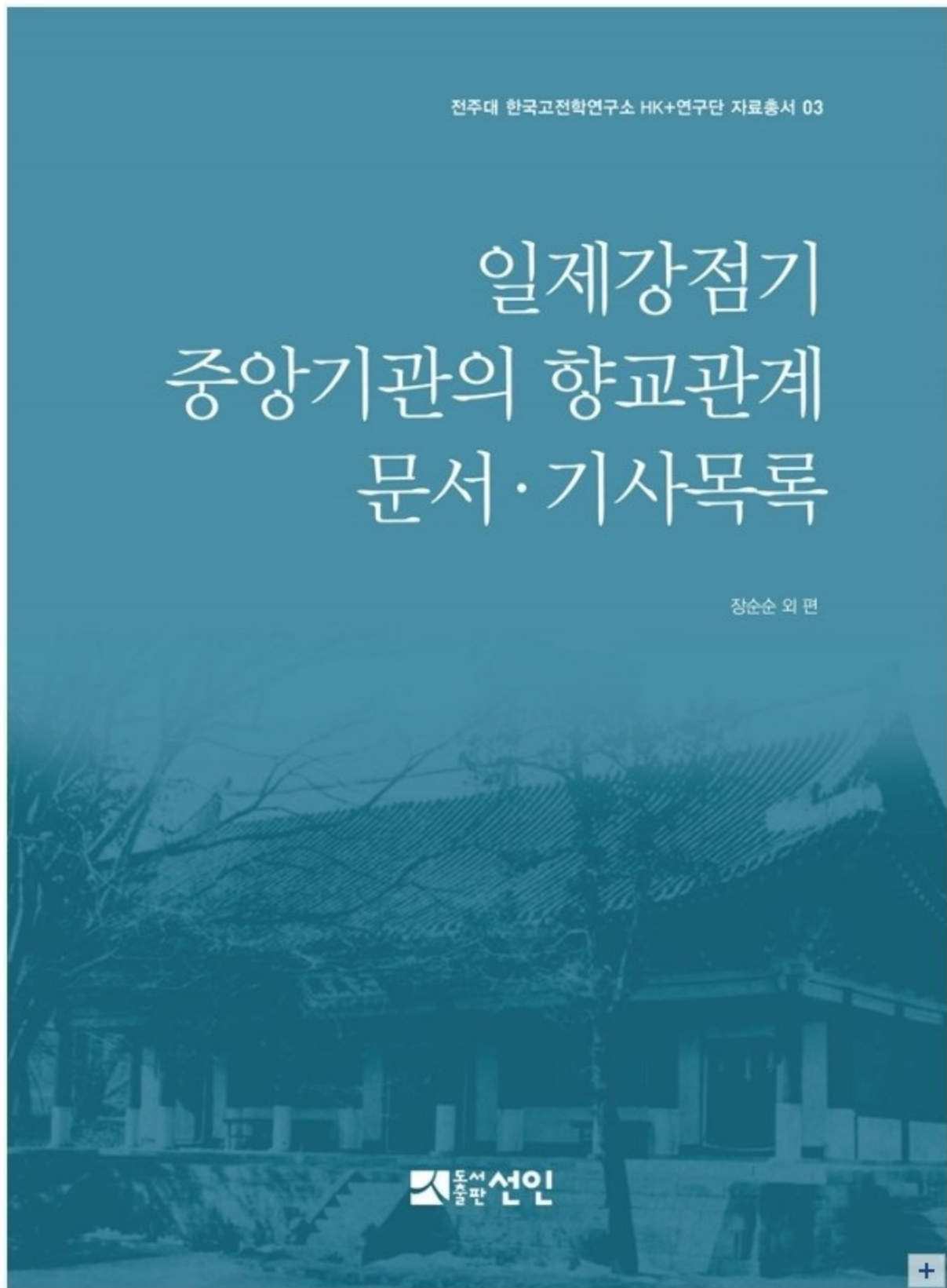
최근뉴스
교육전주대 HK+연구단, '일제강점기 중앙기관 향교 문서·
기사 목록' 출간

이혜숙 기자 | jb@jbkns.com

+ - [icon] [icon] [icon]

승인 2020.04.20 13:10:06

G f [icon] [icon] N 8 [icon]



[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지난 20일, 자료총서 3권 「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기사 목록」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총서는 근대 향교자료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향교관계 문서와 기사의 목록들을 수집한 목록집으로 1910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조선총독부 등 중앙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가운데 향교 관계 문서를 목록화하였다.

공문서로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문서철, 일본 외무성, 주한일본국공사관 기록, 통감부문서, 경성지방법원 문서, 육군성, 외무성 문서 등이 수록되었다.

언론 매체로는 조선총독부의 대표적인 기관지인 「매일신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직속 기관이었던 경학원의 기관지인 「경학원잡지」, 기타 조선총독부와 그 직속의 기관, 각 도에서 출간한 잡지 및 저서에 수록된 향교 관련 문서와 기록을 한 데 모았다.

각 목록은 원문과 한글로 번역한 문서명/기사명과 발행인, 발신과 수신, 문서철, 면수, 생산년도, 생산처의 순서로 정리하였고,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문서는 세부 문서 외에 첨부자료 란을 별도로 두어 목록만으로도 문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하였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권력에 의해 유력한 지방 세력으로 평가받았던 향교 유림과 그들의 활동 근거지였던 향교의 실상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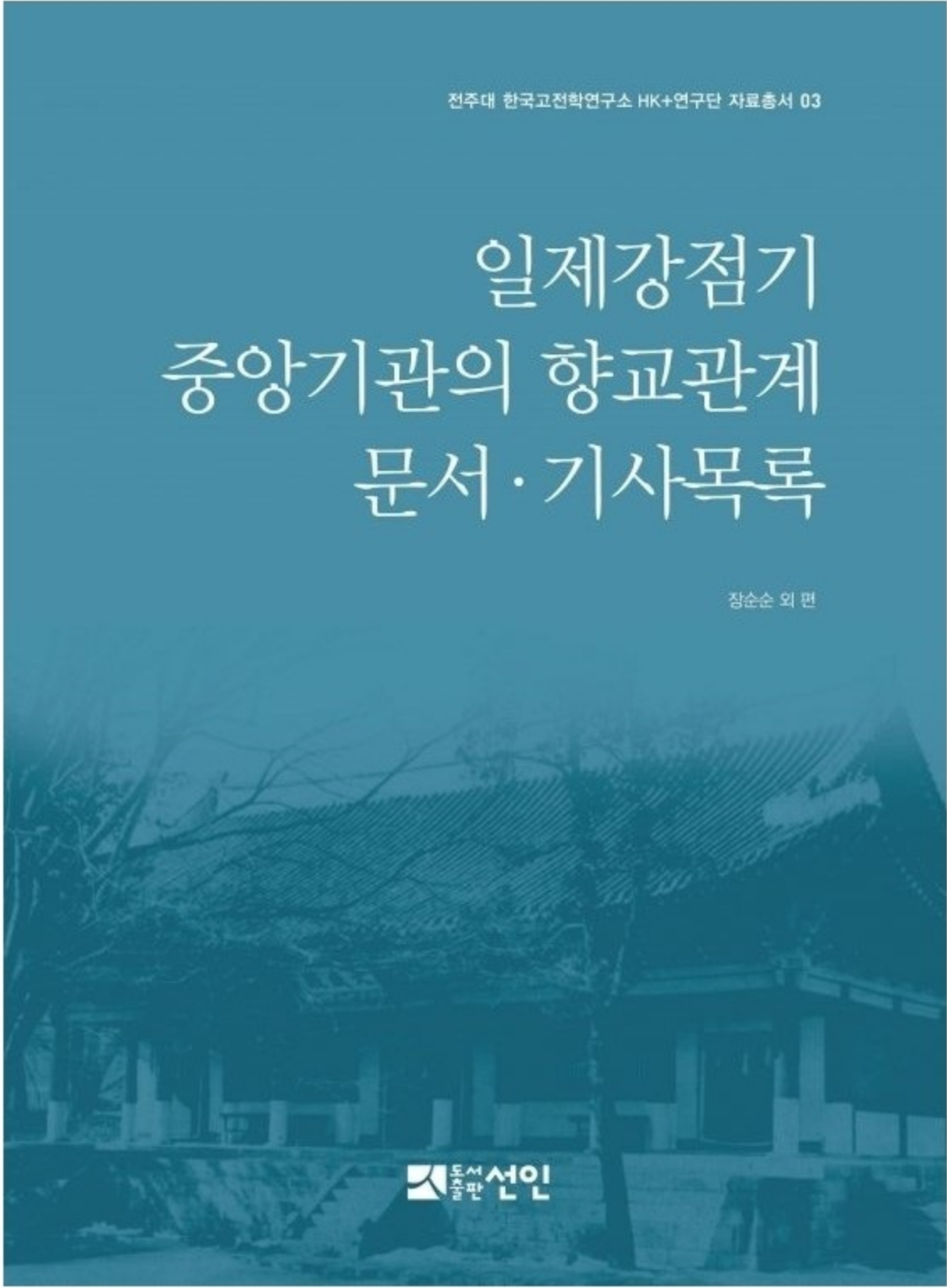


전주대 HK+연구단, '일제강점기 중앙기관 향교 문서·기사 목록' 출간

대학경제 | 권태혁 기자



2020.04.20 16:34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 20일 자료총서 3권 '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기사목록'을 출간했다.

이 자료총서는 근대 향교자료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향교관계 문서와 기사의 목록을 수집한 목록집이다.

특히 1910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조선총독부 등 중앙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가운데 향교 관계 문서를 목록화했다.

공문서로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문서철, 일본 외무성, 주한일본국공사관 기록, 통감부문서, 경성지방법원 문서, 육군성, 외무성 문서 등이 수록됐다.

또한 언론 매체로는 △조선총독부 대표 기관지 매일신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직속 기관인 경학원의 기관지 경학원잡지 △기타 조선총독부와 그 직속의 기관, 각 도에서 출간한 잡지·저서에 수록된 향교 관련 문서 및 기록을 모았다.

각 목록은 원문과 한글로 번역한 문서명·기사명과 발행인, 발신과 수신, 문서철, 면수, 생산년도, 생산처의 순서로 정리했다.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문서는 세부 문서 외에 첨부자료란을 별도로 만들어 목록만으로도 문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제작했다.

이번 자료총서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권력에 의해 유력한 지방 세력으로 평가받던 향교 유림과 그들의 활동 근거지였던 향교의 실상 규명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오피니언 기획&시리즈 지역 포토

최신뉴스 ▶ 용의자 차량서 실종 여성 혈흔 발견

기사

HOME > 문화 > 문화일반

일제강점기 중앙기관과 향교 관계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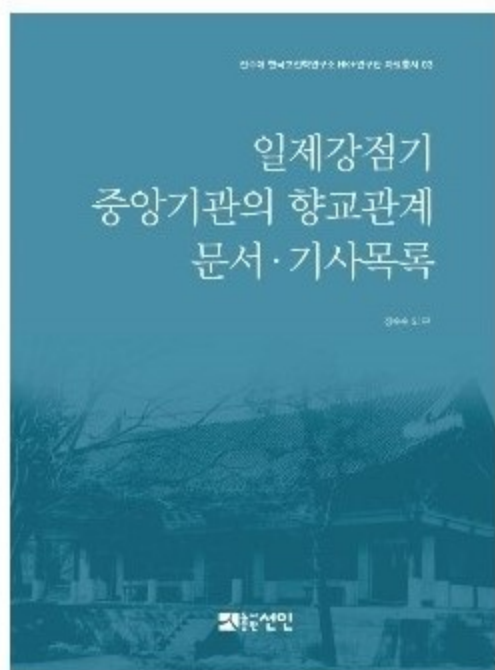
이병재 기자 | 승인 2020.04.20 | 12면

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

+ | - | ✉ | ㅁ 인쇄하기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자료총서 3권 <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기사목록>을 출간했다.

이 자료총서는 근대 향교자료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향교관계 문서와 기사의 목록들을 수집한 목록집으로 1910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조선총독부 등 중앙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가운데 향교 관계 문서를 목록화하였다.

공문서로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문서철, 일본 외무성, 주한일본국공사관 기록, 통감부문서, 경성지방법원 문서, 육군성, 외무성 문서 등이 수록되었다. 언론 매체로는 조선총독부의 대표적인 기관지인 '매일신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직속 기관이었던 경학원의 기관지인 '경학원잡지', 기타 조선총독부와 그 직속의 기관, 각 도에서 출간한 잡지 및 저서에 수록된 향교 관련 문서와 기록을 한 데 모았다.

각 목록은 원문과 한글로 본역한 문서명/기사명과 발행인, 발신과 수신, 문서철, 면수, 생산년도, 생산처의 순서로 정리하였고,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문서는 세부 문서 외에 첨부자료 란을 별도로 두어 목록만으로도 문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하였다.

이번 전주대 HK+연구단의 자료총서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권력에 의해 유력한 지방 세력으로 평가받았던 향교 유림과 그들의 활동 근거지였던 향교의 실상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이병재기자-kanadasa@

'일제강점기 중앙기관 향교 문서·기사 목록' 출간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4.20 18:20 | 댓글 0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지난 20일, 자료총서 3권 '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기사목록'을 출간했다. 이 자료총서는 근대 향교자료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향교관계 문서와 기사의 목록들을 수집한 목록집으로 1910년 을사조약 체결 직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조선총독부 등 중앙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가운데 향교 관련 문서를 목록화했다.

공문서로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문서철, 일본 외무성, 주한일본국공사관 기록, 통감부문서, 경성지방법원 문서, 육군성, 외무성 문서 등이 수록됐다. 언론 매체로는 조선총독부의 대표적인 기관지인 '매일신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직속 기관이었던 경학원의 기관지인 '경학원잡지', 기타 조선총독부와 그 직속의 기관, 각 도에서 출간한 잡지 및 저서에 수록된 향교 관련 문서와 기록을 한 데 모았다.

각 목록은 원문과 한글로 본역한 문서명/기사명과 발행인, 발신과 수신, 문서철, 면수, 생산년도, 생산처의 순서로 정리하였고,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문서는 세부 문서 외에 첨부자료란을 별도로 두어 목록만으로도 문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정리했다.